

브라질, 1992년 이후 최악의 해고위기 봉착

- 국제금융위기로 인한 세계경제 침체 여파로 브라질내 고용환경이 크게 악화되어 지난 '08년 12월중 약 65만 4천여명이 해고되어 1992년 이래 사상 최고의 해고사태가 발생
 - 지난 1월초 발표된 브라질 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세계경제 위기 여파가 본격적으로 미치기 시작한 지난 10월부터 고용인력이 축소되기 시작하여 11월중 4만 800여개의 일자리가 감소하였으며 12월중에 이와 같은 대량해고 사태가 발생
 - 산업부문별로 제조업의 일자리 감소가 약 27만 3천여개로 총 해고자수의 41.7%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비율을 나타내었으며, 농축산업이 13만 4천여개, 서비스업이 11만 7천여개, 건설업이 8만 2천여개의 일자리 감소가 발생
- 브라질내 경제 전문가들은 '09년에도 이와 같은 감원사태는 지속될 전망이며 특히 1/4분기중에는 월평균 10만명씩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전망
 - 브라질 기획부 산하 응용경제연구소(IPEA)는 대량해고 상태를 피하기 위해서는 '09년 경제성장률이 최소한 4%대가 되어야 하나, 예상성장률은 2~2.5% 수준으로 최소한 약 80만명의 실업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
 - 심지어, 성장률이 1%에 머무를 경우 실직자 수는 약 110만명에 달할 수도 있다고 경고

- 이에 따라 브라질 정부는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가 가장 큰 제조업을 중심으로 고용 장려책을 실시하도록 정부 각 부처에 대책마련을 지시
 - 먼저, 향후 근로자를 해고하는 기업에 대해 금융지원 중단, 조세감면 혜택 취소 등의 강력한 제재조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, 실업보험 지급 확대 등을 검토중
 - 아울러, 내수시장 활성화와 생산성 제고 및 고용창출을 주요 목표로 하는 추가 대응책을 이달 안으로 발표할 예정
-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풀리오 바르가스 재단(FGV)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브라질 제조업체의 직원 감축은 2월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
 - 동 재단이 조사한 1,086개의 제조업체들중 약 32.5%가 2월까지 직원을 감축할 계획이라고 응답하였으며, 특히 기계장비 회사들의 68.3%가 해고할 계획이라고 답변
- 한편, 브라질 재계와 노동계는 글로벌 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로 직원의 감축사태는 피할 길이 없지만 더 이상의 감원을 피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금리인하와 산업인프라 투자 증가 등과 같은 브라질 정부의 시급한 조치를 촉구
 - 실제 브라질정부는 지난 1월 21일 지난 4개월간 동결되어 온 기준 금리를 13.75%에서 1% 포인트 축소한 12.75%로 인하하였지만, 브라질내 경제전문가들은 아직도 금리를 더 낮춰야 한다는 의견

<사용파울루 사무소 제공>